

삼성광주전자·대우일렉 등 지역 家電업체

첨단 신제품으로 유럽 공략

베를린 IFA 참가...드럼 세탁기 등 친환경 기술 대거 소개

지역에 기반을 둔 국내 가전업체들이 다음달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09)에 참여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올해로 49회를 맞은 IFA는 연초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전시회(CES)와 함께 세계 양대 전시회로, 가전전시회로,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광주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생활가전 3사 등 40여개 업체가 첨단 디지털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IFA 전시회는 크게 디스플레이와 가전 전시로 나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등 세계 3대 TV 메이커들은 이번엔 LED TV, AM OLED TV 등을 선보이며 TV 기술력을 뽐낸다.

또 지난해에 이어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커피메이커 등 생활가전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면서 삼성광주전자와 대우일렉 등 지

역에 공장을 둔 주요 가전업체들은 첨단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절약과 소비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90여 종의 가전 신제품을 공개한다. 특히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 시장 추세에 맞춰 물을 대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50%까지 줄일 수 있는 에코 드럼세탁기, 에너지 등급 A++를 받은 콤팩트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대우일렉도 '드럼 업' 세탁기 등 최신 인기 제품을 소개하고 마케팅 분야 인력이 총출동해 전시회장 곳곳에서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하는 등 주력 제품의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LG전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분야의 제품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의 스웨덴 최대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는 미래형 세탁기와 냉장고, 독일의 밀레와 지멘스 등 유명 가전 업체들은 세탁기, 청소기 등 주력제

품을 출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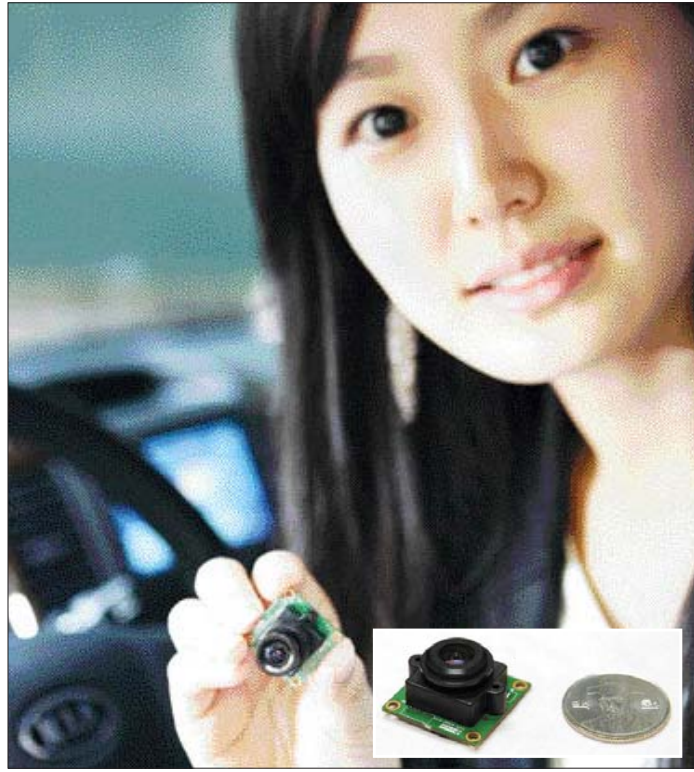
그동안 불참하거나 소규모로 참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소니는 초대형 부스를 확보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맞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야전 사령관들도 전시회를 누빈다.

작년 불참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는 올해 최지성 DMC(완제품) 부문 사장, 윤부근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과 함께 전시회를 둘러볼 예정이다 LG전자도 이영하 HA(Home Appliance) 사업본부장 사장과 TV부문 총괄하는 강신익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장 사장이 참석한다. 소니는 스트링거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시회가 단순히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G이노텍이 최근 개발을 완료한 자동차 블랙박스용 34만 화소 VGA급 카메라 모듈. 100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크기지만 화각이 142도로 사고 현장을 정밀하고 정확히 찍을 수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 개발 LG이노텍 광주공장 내년부터 양산

LG이노텍은 자동차 블랙박스용으로 사용하는 34만 화소 VGA급 카메라 모듈(사진)을 개발, 내년부터 광주공장에서 양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카메라 모듈은 주행 중이거나 주·정차 상태에서 주변을 촬영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책임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핵심 부품이다.

이번에 개발한 카메라 모듈은 142도의 넓은 화각을 갖고 있어 주변을 폭넓게 촬영할 수 있고, 기존 제품보다 야간의 영상 성능이 60% 정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신호 대비 잡음 비율인 SNR(Signal-to-Noise-Ratio)는 45데시벨(dB)로 기존 제품보다 20% 정도 개선됐다.

LG이노텍은 이 제품을 내년부터 광주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블랙박스 시장이 정부의 블랙박스의 의무장착화와 보험료 할인제도 확대에 맞춰 올해 10만대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G이노텍은 화각 70도인 CCTV용 카메라 모듈도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LG이노텍측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융합되면 카메라모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주간 증시 포커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IT·자동차·증권주 유망

지난주 국내증시는 1,600선을 회복하면서 주간 1.7%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9월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1,600선 이후 상승탄력이 크게 둔화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증시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두 가지 원동력인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흐름과 외국인 중심의 대규모 유동성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표기업들의 펀더멘탈(Fundamental·기초경제 조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다.

상승 동력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증시의 조정 기조가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흐름에 약간의 생체기를 내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 증시의 조정은 건축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부양책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 역시 지수가 1,600선에 도달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어 투신권의 매물압박을 높이고는 있지만 외

국인 유동성의 유입 규모에 비하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국내외 월말, 월초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눈여겨 볼 지표는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한국 산업생산지수 등이 있다. 수출,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가능케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차별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투신권이 주식을 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크게 부족하기도 한 역설적인 수급상황 때문이다.

투신권으로의 간접투자자금이 재차 유입세로 반전되기 전까지 국내 증시의 유동성 수혜는 순환 매를 형성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양상들을 감안하면 시장에 대한 접근방식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 최선이겠다. IT, 자동차, 증권, 보험 등을 주목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옐로우칩 성격의 대표주들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는 자세다.



박종모 <굿모닝 신한증권 광주지점장>

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소비자 사로잡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장 조사기관 JD파워의 가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 3개 제품이 1위를 차지했다.

28일 JD파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냉장고는 1천 점 만점 중 834점으로, 업계 평균인 788점을 넘어서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탁기는 834점으로, 건조기는 842점으로 1

위를 차지했다.

JD파워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조리기기, 식기세척기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작동성, 기능성, 사용편의성, 디자인, 가격, 품질 및 보증기간 등 6개 부문을 평가했다.

시장조사기관 NPD PO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프렌치도어 냉장고 시장에서 판매 금액 기준으로 1월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점유율 30.4%를 기록하며 2위 업체를 10% 포인트가량 따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는 유일하게 '최고 만족'(별점 5개) 평가를 받았고 냉장고는 삼성전자와 월플만 '최고 만족'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p>신입 아파트</p> <p>1. 100㎡ 1000만원 2. 100㎡ 1000만원 3. 100㎡ 1000만원</p>	<p>신입 아파트</p> <p>1. 100㎡ 1000만원 2. 100㎡ 1000만원 3. 100㎡ 1000만원</p>	<p>신입 아파트</p> <p>1. 100㎡ 1000만원 2. 100㎡ 1000만원 3. 100㎡ 1000만원</p>	<p>신입 아파트</p> <p>1. 100㎡ 1000만원 2. 100㎡ 1000만원 3. 100㎡ 1000만원</p>
--	--	--	--

대한민국과 중국공부기 함께 만드는 무안 국제신항도시

출구개발부: '해외경제추진 협력구'로 지정되어 한·중 최대의 경제협력단지로 개발됩니다

무안군